

WEEKLY REPORT

KMI 북방물류리포트

VOL.100
AUG 21 2019

발간년월 2019년 8월 21일 (통권 제100호)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(동삼동) 발행인 양창호 총괄 이주호 감수 길광수 담당 김엄지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항만·물류연구본부 글로벌SCM 연구실 TEL +82-51-797-4665 FAX +82-51-797-4659



주요 동향

- 러시아, 시베리아극동 지역 산림 복원을 위해 중국 협조 요청
- 옴스크주, 내륙수운과 북극항로를 통한 곡물 수출 확대 예정
- 서중국-유럽간 운송로 단축을 위한 도로교량 건설
- 다르항, 셀렝게산(産) 농산물 운송로 구축 방안 논의
- 우크라이나, 드니프로 강의 내륙수운 물동량 증가...내륙수운 예산 증액

이슈페이퍼

- 일 수출규제, 한러 경험 실질적 성과 기대...반도체산업 '안정화', 러 조선사업 발전 계기

주요 통계

- 2019년 상반기 러시아 수역별 항만 물동량
- 2019년 상반기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
- 2019년 상반기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



주요 동향



러시아, 시베리아극동 지역 산림 복원 위해 중국 협조 요청

■ 러시아 자원·환경부(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)가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산림 복원을 위해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, 수출 규제 등 강력한 이행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함

- 특히 Dmitry Kobytkin 자원·환경부 장관은 환경적·경제적 측면에서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는 불법 벌목 근절이 시급하며,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함
- Dmitry Kobytkin 장관은 중국이 불법 벌목 금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, 중국으로의 목재 수출 규제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

■ 이는 불법 벌목으로 인한 러시아 타이가(taiga) 지대의 1차 피해 뿐 아니라 방화로 인한 2차 피해가 이슈화되었기 때문임

- Greenpeace International에 따르면 올해 화재로 인한 러시아 타이가 지대의 피해는 예년보다 큰 1,300만 헥타르이며, 이는 그리스 전체 면적보다 넓은 수준임

■ 러시아산 목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시베리아극동 산림 복원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

- 중국은 세계적인 규모의 가구 공급국가인 동시에 제2위 목재 수요국가로서, 목재 수입량 중 약 31%가 러시아산임(2017년 기준)
- ‘2019~2023 중국 목재수입 연구보고서’에 따르면, 2017년 기준 중국의 목재 수입은 전체 목재 수요의 56.4%로 2013년 48.4% 대비 약 16.5% 증가했음

조지성 전문연구원

(051-797-4916, jisungjo@kmi.re.kr)

참고자료

a) <https://caspiannews.com/news-detail/with-siberian-forests-in-jeopardy-moscow-puts-presure-on-beijing-2019-8-18-6/>(2019.8.18. 검색)

옴스크주, 내륙수운과 북극항로 통해 곡물 수출 확대 예정

■ 옴스크주는 생산된 곡물을 수출하는 데 있어 내륙수운과 북극항로를 적극 활용할 예정임

- 이동 경로는 옴스크주를 가로지르는 이르티시강과 본류인 오비강을 거쳐 북극 야말지역으로 수송된 후 북극항로로 연결됨
- 옴스크주는 연평균 190만톤의 상품을 수출하며 이 중 대부분인 130만 톤은 철도를 통해 수송해 왔음
- 해상을 통한 수송은 철도를 통한 수송보다 톤당 4,000~5,000루블 저렴함
- 옴스크 주정부는 해상을 통한 수송 비중을 70%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
- 90년대 이후부터 지속된 내륙수운 물류에 대한 논의는 북극항로의 개발과 함께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음

■ ACRA 그룹의 막심 쿠달로프(Maxim Khudalov)는 옴스크주 외에도 바다를 접하고 있지 않은 크라스노야르스크변강과 하카시아공화국 등도 내륙수운과 북극항로를 활용한 물류를 적극 검토 중임

- 러시아 자원개발부는 오비강 내륙수운을 통한 곡물 수송 확대 가능성을 반영해 올해 3월 북극항로를 통한 화물 수송 예상량을 수정함
- 러시아 연방정부는 2016년 2월 29일, '내륙수운 개발전략 2030'을 승인했으며 동 정책을 통해 2030년 까지 전반적인 내륙수운 물류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함

표 1. 2030년까지 러시아 내륙수운 예상 물동량 및 예상 여객수

(단위: 백만 톤, 백만 명)

구분	2013	2014	2015	2018	2020	2024	2030
화물	137.3	124.8	124.8	147.5	172.6	199.5	242.2
여객	13.2	12.7	13.6	14.9	15.1	15.7	16.6

그림 1. 오비강(본류) 및 이르티시강(지류) 내륙수로망



이호건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
(leehkun2010@gmail.com)

참고자료

- a) 러시아 연방 내륙수운 개발전략 2030, 2016, 부록 2
- b) wikipedia.org(2019.08.19. 검색)
- c) http://logirus.ru/news/transport/po_-zernovym_stopam-_omskoy_oblasti_po_sevmorputi_mogut_poyti_eshche_dva_regiona.html(2019.08.19. 검색)

서중국~유럽 간 운송로 단축 위한 도로교량 건설

■ 프리볼시스크 연방관구(또는 볼가연방관구)에 위치한 사마르주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인 볼가교량 건설 계획을 발표함

- 사마르주는 러시아 볼가강을 지나는 도로교량을 건설함에 따라 사마르 지역이 유럽과 서중국을 연결하는 국제도로운송회랑의 일부가 될 것을 기대함
- 이에 따라 사마라 지역 투자자들과 운송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

■ 이번 도로교량이 완공되면 서중국과 유럽 간 거리가 약 400km 단축됨

- 실크로드 재건을 위한 서중국과 유럽 간 국제도로운송회랑은 약 8,000km의 대륙횡단 프로젝트로 벨라루스, 카자흐스탄, 중국의 도로 건설은 대부분 완공되었으며 2024년까지 러시아 부분의 도로건설이 완공될 예정임
- 서중국~유럽 간 국제도로운송회랑이 연결됨에 따라 대형화물 등의 운송비용 및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

김은미 현지리포터 국립극동교통대학교
(051-797-4776, usea1004@gmail.com)

참고자료

a) http://logirus.ru/news/transport/most_cherez_volgu_-_doroga_v_kitay.html(2019.8.18. 검색)

다르항, 셀렝게산(産) 농산물 운송로 구축 방안 논의

■ 지난 8월 19일, 정부 청사에서 국가특별위원회 확대 회의 개최

- 본 회의에는 오.후렐수흐(U.Khurelsukh) 국무총리 및 우.엔흐툽신(Ö.Enkhtuvshin) 부총리가 참석했으며, 21개 아이막 지사와 부총리도 함께 참석해 2019년 국가월동준비에 대한 의견을 교환

■ 올해 몽골의 전체 농산물 수확량은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

- 올해 몽골에서는 약 502,000m² 지역에서 경작이 이루어졌으며, 그중 불강(Bulgan), 오르혼(Orkhon), 아르항가이(Arkhangai), 셀렝게(Selenge) 아이막의 일부 지역은 수확량이 예년 수준일 것으로 예상
- 그러나 툽(Töv), 헨티(Khentii), 다르항-울(Darkhan), 우부르항가이(Övörkhangaï), 읍스(Uvs), 셀렝게(Selenge) 지역의 약 2,500m² 경작지에서는 수확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발표되었음

■ 몽골 내 도로 공사의 지연도 월동준비에 어려움을 가져다줄 것으로 보임

- 울란바타르~다르항 간 204km 도로 확장 공사는 24.2% 진행되고 있으며, 울란바타르~날라이호 간 20.9km 도로 개선 공사는 37% 가량 진행 중임
- 올해는 예년보다 강수량이 많아 공사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나, 11월 20일까지는 완공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나 임시 도로도 많은 비로 유실되고 미끄러워 대형 차량이 지나다니기 어려운 실정임
- 특히 울란바타르~다르항 간 도로의 공사 지연은 농산물 생산량이 많은 지역인 아르항가이, 셀렝게 지역의 물류 운송에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있으며, 이를 대체하기 위해 철도로 수송하는 방안을 논의 중

■ 올해 여름에 내린 많은 비로 인해 겨울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

- 정부에서는 아이막, 숨 지도자들이 겨울 준비를 위해 지역 축제 개최를 자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
- 기후 환경 연구에 따르면 8월 말에는 비가 내리고 추워질 것으로 예상되며, 9월 말에는 산

간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면 농·목축업 종사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함

그림 2. 울란바토르-다르항 도로 공사 지연 구간



신민선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
(031-330-4145, editor405ca@gmail.com)

참고자료

- a) <http://www.control.mn/i/19714#.XVwj4uR7nIU>(2019.8.20. 검색)
- b) news.mn(2019.8.20. 검색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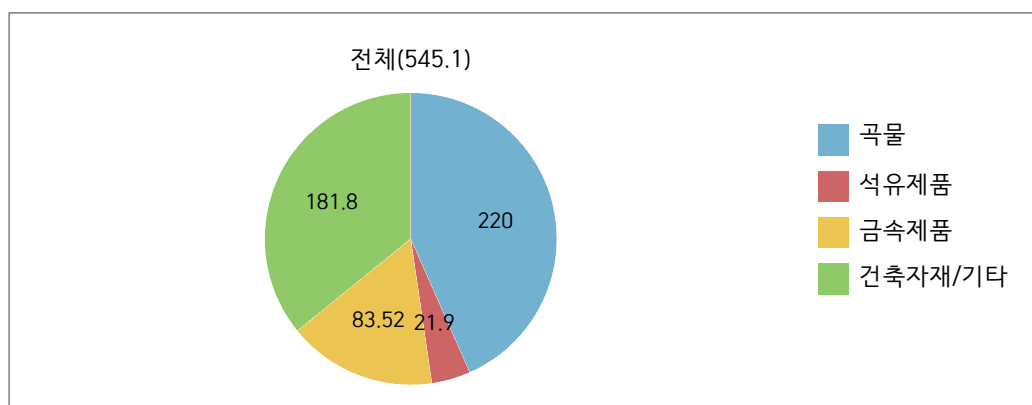
우크라이나, 드니프로 강의 내륙수운 물동량 증가...내륙수운 예산 증액

■ 우크라이나 항만공사 산하 내륙수운정보국(River information Service on inland waterway of Ukraine) 드니프로(Dnipro, 러시아어 드네프르Dnepr) 강을 통한 금년 1~7월 내륙수운 물동량이 전년 대비 31% 증가한 545만 1,000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

- 품목별 중에서 곡물 물동량이 전년 동기간 대비 2.2배가 상승한 220만 톤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, 금속제품은 34%가 상승하여 83만 5,200톤의 수치를 나타냈음
- 반면 석유제품은 32%가 감소하여 21만 9,000톤을, 건축자재 및 기타화물은 5.7%가 감소한 181만 8,000톤을 기록했으며, 컨테이너 화물은 강을 통해 운송되지 않았음
- 다만 선박 통행량은 전년도 동기간 대비 31%가 감소한 5,775척을 기록했으나, 한 해 전체 통행량의 경우 물동량과 함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음
- 2018년 총 선박 통행량은 2017년도 대비 10.2%(1,664척)가 상승한 16,390척이었으며, 전체 물동량은 22.4%가 상승한 990만 5,000톤이었음

그림 3. 올해 1~7월 드니프로 수역 이용 품목별 물동량

(단위: 만 톤)



■ 이와 같은 내륙수운 물동량의 증가 추세에 따라 우크라이나 인프라부(Ministry of Infrastructure) 산하 내수항만공사의 2020년 사업 예산 또한 증액되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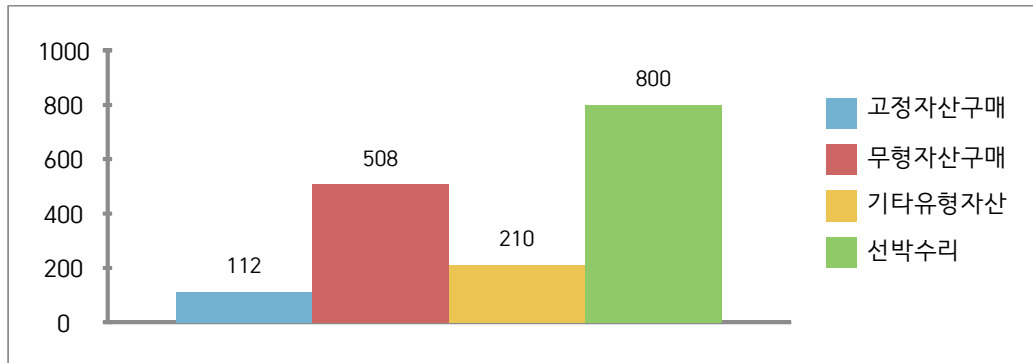
- 2020년 예산 총액은 2,116만 1,700흐리브나(한화 약 10억 1,200만원)로 책정되었으며, 이는

전년 2019년 예산 대비 7.8%가 증액된 수치임

- 또한 총 163만 흐리브냐(한화 약 7,800만 원) 규모의 자본 투자금 확보 계획이 수립되었으며, 각각 감가상각비 공제 131만 9,200흐리브냐, 건설개발기금 34만 8,200흐리브냐에서 출자되었음
- 2020년 자산별 투자 금액은 다음과 같음

그림 4. 2020년 자산별 투자금액

(단위: 천 흐리브냐)



조용성 현지리포터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
(+7 981-198-65-06, mirinae2929@gmail.com)

참고자료

- <https://ports.com.ua/uk/news/v-yanvare-iyule-obem-gruzoperevozok-po-dnepru-vyros-na-31>(2019.8.20. 검색)
- [https://maritimebusinessnews.com.ua/%d1%84%d1%96%d0%bd%d0%b0%d0%bd%d1%81%d0%be%d0%b2%d0%b8%d0%b9-%d0%bf%d0%bb%d0%b0%d0%bd-%d0%b4%d0%bf-%d0%b0%d0%b4%d0%bc%d1%96%d0%bd%d1%96%d1%81%d1%82%d1%80%d0%b0%d1%86%d1%96%d1%8f-%d1%80%d1%96/2019/08/20/\(2019.8.20. 검색\)](https://maritimebusinessnews.com.ua/%d1%84%d1%96%d0%bd%d0%b0%d0%bd%d1%81%d0%be%d0%b2%d0%b8%d0%b9-%d0%bf%d0%bb%d0%b0%d0%bd-%d0%b4%d0%bf-%d0%b0%d0%b4%d0%bc%d1%96%d0%bd%d1%96%d1%81%d1%82%d1%80%d0%b0%d1%86%d1%96%d1%8f-%d1%80%d1%96/2019/08/20/(2019.8.20. 검색))
- Maritimebusinessnews.com.ua 2019(2019.8.20. 검색)
- Ports of Ukraine 2019



이슈페이퍼



일 수출규제, 한러 경험 실질적 성과 기대...반도체 산업 ‘안정화’· 러 조선사업 발전 계기

■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싸고 시작된 수출규제 갈등은 점입가경에 이르고 있음

- 한일 간 정치적 갈등이 경제 제재로 이어지며 기업과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
- 특히 반도체 수출대국인 한국에게 일본은 반도체 생산의 핵심원료인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라는 비신사적 악수를 두며 양국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

■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수출효자로 꼽히던 반도체 산업에 적신호 켜지며 당사자인 기업들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대책마련에 부심 중임

-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에 신북방정책의 주 협력국인 러시아는 반도체 생산공정의 핵심재료인 불화수소에 대해 협력의사를 전해옴

■ 러시아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정부에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불화수소 공급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함

- 이에 불화수소를 통해 앞으로 한러 간 실질적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음

■ 지난달 대통령과 30대 대기업 총수들이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산 불화수소 수입 가능성이 논의됨

- 이같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러시아 정부가 주러 한국대사관을 통해 불화수소 생산에 있어 러시아가 일본보다 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일본산보다 순도가 높은 러시아산 불화수소를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해 왔다고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밝힌데 따른 것임

- 현재 한국 기업들은 필요한 고순도 불화수소의 41.9%, 포토레지스트의 83.2%, 불화 폴리이미드의 84.5%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음

■ 한국은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체 수입원을 찾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음

- 만약 한국 측이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반도체 산업에서라도 타격을 훨씬 감소시킬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커져가는 상황임

■ 물론 전문가들은 새로운 소재는 정밀한 테스트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를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임

- 공급처를 교체하는 데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반도체 생산라인 하나를 만드는 데 1조 원 가량이 들어 설비보안 문제 등으로 단시일 내 원료원을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함
- 또한 공급사를 변경할 경우 라인 안정화를 위한 시험기간이 6개월 정도 필요해 당분간 반도체 생산량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함
- 한국의 한 기업은 러시아의 불화수소 공급 제안과 관련해 현재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면 품질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고순도 불화수소는 민감한 물질이라 테스트 기간만 2개월 넘게 걸린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명함

■ 한국의 불화수소 국산화를 러시아가 적극 협력하고, 한국 또한 그 어떤 산업보다 국산화를 바라는 러시아의 조선사업에 지금보다 활발하게 협력한다면 한러 경제협력에 가장 중요한 실질성과가 맺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음

- 이같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이 실현되면 수년간 펼쳐온 신북방정책의 성과측면에서 의미있는 결실을 맺을 것으로 한국의 러시아비즈니스전문가는 내다보고 있음

■ 러시아는 최근 한국이 러시아 극동 경제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음

- 러시아 정부는 곤경에 처한 한국에 도움이 손길을 내밀면서 경제적 관계뿐 아니라 강력한 동반자적인 협조 관계를 맺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음

■ 동북아 주요국 정상들이 총집결하는 국제회의인 제5차 동방경제포럼이 다음달 초 극동러시아의 심장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섬 극동연방대에서 열림

- 동방경제포럼은 푸틴 대통령의 극동·시베리아 개발 정책 추진에 따라 2015년부터 매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거대 외교 행사임
- 일본의 아베 총리는 이 행사의 중요성을 인식해 매년 직접 참석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아베 총리의 동방경제포럼 참석이 유력시 되고 있음
- 한국은 동방경제포럼을 활용해 러시아와의 협력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외교전략을 펼쳐야 할 것임

전명수 현지리포터 국립블라디보스토크경제서비스대학교

(070-5044-9502, msjeon1976@gmail.com)

참고자료

a) <https://www.amur.info/news/2019/08/08/158179>(2019.8.19. 검색)



주요 통계



표 1. 2019년 상반기 러시아 수역별 항만 물동량

(단위: 백만 톤, %)

수역*	건화물	액체화물	합계	2018/2019 증가율
극동지역	66.46 (+8.6%)	38.49 (+3.9%)	104.95	+6.8%
북극해	14.91 (+5.5%)	36.74 (+35.3%)	51.65	+25.1%
발트해	55.5 (+2.6%)	74.56 (+8.8%)	130.06	+6.1%
아조프-흑해	41.57 (-28.3%)	77.32 (+2.7%)	118.89	-10.8%
카스피해	1.28 (-7.6%)	2.21(+213.3%)	3.48	+44.1%
합계	179.71(-4.8%)	229.33(+9.7%)	409.04	+2.8%

* 주: 극동지역: 블라디보스톡, 자루비노, 올가, 오시에트, 나호트카, 보스토치니, 바니노, 소비에트카야가반, 데-캐스트리스,

네벨스크, 홀름스크, 프리고로드노예, 마가단,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스키

북극해: 무르만스크, 칸달라크샤, 나리얀마르, 두딘카, 아르한겔스크, 오네가, 바란데이, 페베크, 사베타

발트해: 상트페테르부르크, 프리모르스크, 브보스크, 비소츠크, 우스트-루가, 칼리닌그라드

아조프-흑해: 노보로시스크, 겔렌지크, 투압세, 타간로크, 아조프, 로스토프 나 도누, 다망, 템류크, 카프카즈

카스피해: 아스트라한, 올라, 마하치칼라

표 2. 2019년 상반기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

(단위: 천 톤)

품목	해외*		CIS**		합계	
	수출	수입	수출	수입	수출	수입
식료품 및 원자재	1,894,027.1	549,430.1	6,927.6	5,640.4	1,900,954.7	555,070.6
광물 제품	9,189,168.2	62,701.8	138,617.0	94,535.3	9,327,785.2	157,237.2
연료 및 에너지 제품	8,867,147.4	56,351.3	483.1	33.9	8,867,630.5	56,385.2
생고무 및 화학 제품	27,526.8	331,694.4	1,919.6	4,185.8	29,446.4	335,880.2
가죽원료, 모피 제품	599.7	7,715.8	36.5	167.5	636.2	7,883.3
목재 및 펄프, 종이 제품	567,579.2	44,917.7	2,390.0	678.7	569,969.2	45,596.4
섬유, 섬유 제품 및 신발	1,496.3	132,123.1	482.1	3,016.6	1,978.4	135,139.8
금속 및 금속 제품	272,474.6	317,769.4	544.9	6,158.9	273,019.5	323,928.2
기계류	559,665.1	2,028,913.8	6,254.8	6,418.5	565,919.9	2,035,332.4
기타	1,728,789.7	248,769.1	76,843.2	1,062.8	1,805,632.9	249,831.9
합계	14,241,326.7	3,724,035.3	234,015.8	121,864.6	14,475,342.4	3,845,899.9

*주: CIS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

**주: 아제르바이잔, 아르메니아, 벨라루시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몰도바, 타지키스탄, 우즈베키스탄

표 3. 2019년 상반기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

품목	해외*				CIS**				합계			
	수출		수입		수출		수입		수출		수입	
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
선어,생물	0	0	13	98.0	-	-	-	-	0	0	13	98.0
냉동어	715,032	1,043,003.7	20,692	34,765.9	178	447.4	-	-	715,210	1,043,451.1	20,692	34,765.9
연어류	38,100	81,936.5	-	-	25	72.7	-	-	38,125	82,009.2	-	-
넙치	2,279	11,422.9	-	-	-	-	-	-	2,279	11,422.9	-	-
가자미	7,210	10,578.0	-	-	-	-	-	-	7,210	10,578.0	-	-
가자미류	13,519	18,456.7	-	-	-	-	-	-	13,519	18,456.7	-	-
청어	76,095	45,168.8	-	-	153	347.7	-	-	76,248	45,543.5	-	-
대구	35,952	101,543.6	-	-	-	-	-	-	35,952	101,543.6	-	-
명태	478,954	578,049.4	-	-	-	-	-	-	478,954	578,049.4	-	-
농어	275	1,038.7	-	-	-	-	-	-	275	1,038.7	-	-
간, 곤이 (어란)	35,468	159,917.6	-	-	-	-	-	-	35,468	159,917.6	-	-
지느러미, 머리, 꼬리 등 생선부산물	4,309	6,623.0	-	-	-	-	-	-	4,309	6,623.0	-	-
생선필렛, 어육	45,268	125,824.2	537	1,973.2	-	-	-	-	45,268	125,824.2	537	1,973.2
건어, 훈제, 염장, 어분	281	596.6	492	2,747.5	-	-	-	-	281	596.6	492	2,747.5
갑각류	31,191	456,548.0	166	1,003.8	-	-	-	-	31,191	456,548.0	166	1,003.8

계류	24,911	409,300.6	-	-	-	-	-	-	24,911	409,300.6	-	-
조개류	7,116	18,272.7	-	-	-	-	-	-	7,116	18,272.7	-	-
가리비류	3,599	6,880.7	-	-	-	-	-	-	3,599	6,880.7	-	-
오징어류, 문어류	1,981	3,417.9	221	1,259.3	-	-	-	-	1,981	3,417.9	221	1,259.3
수산무척추동물	5,412	16,465.7	-	-	0.4	20.3	-	-	5,412	16,486.0	-	-
해삼류	743	2,121.9	-	-	0.4	20.3	-	-	743	2,142.2	-	-
성게류	4,615	13,955.4	-	-	-	-	-	-	4,615	13,955.4	-	-

(단위: 천 톤, 달러)

*주: CIS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

**주: 아제르바이잔, 아르메니아, 벨라루시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몰도바, 타지키스탄, 우즈베키스탄

올가 연구원 KMI 러시아연구센터
(thkim@kmi.re.kr/051-797-4783)

참고자료

- a) http://www.morvesti.ru/detail.php?ID=79538&sphrase_id=1929165(2019.8.11. 검색)
- b) <http://dvtu.customs.ru/statistic/2019-god/operativnaya-informacziya>(검색일: 2019년 8월 11일)
- c) <http://dvtu.customs.ru/statistic/2019-god/operativnaya-informacziya>(검색일: 2019년 8월 11일)